

##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과의 관계

노소영\* · 유난숙\*\*1)

이화여자대학교석사졸업\* ·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생활과학연구소\*\*

---

### Relationship of parenting style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their peer attachment, relationship with teacher, and self-identity with career identity

Noh, So Young\* · Yu, Nan Sook\*\*1)

*Alumna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Ec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self-identity, parenting style, peer attachment, and relationship with teacher on career identity, and to verify if self-identity shows the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enting style, peer attachment, relationship with teacher, and career ident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data of 3rd-year middle school students, from the 1st grade panel of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as used as the analysis data. The program which was used for the analysis was SPSS ver 22,0 for descriptive, Cronbach's  $\alpha$ ,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revealed that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for career identity was self identity, followed by peer attachment, while relationship with teacher is least influential. Parenting style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career identity. Second, it was revealed that self-identity had a moderating effect when the interaction between parenting style and the self-identity, and the interaction between relationship with teacher and the self-identity were injected. Therefore, if the education related to the self-identity is conducted continuously in the home economics subject, the conflict and anxiety on the career problem of middle school students will be reduced and the career identity will be developed more effectively.

---

1) 교신저자: Yu, Nan Sook,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ongbong-ro 77, Buk-gu, Gwangju, 61186, The Republic of Korea  
Tel: 062-530-2524, Fax: 062-530-2529, E-mail: nansooksb@gmail.com

**Key words:** 진로정체감(career identity), 자아정체감(self-identity), 부모양육방식(parenting style), 또래애착(peer attachment), 교사관계(relationship with teache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청소년기에는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통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다. 청소년기의 진로발달은 이전에 비해 가속화되고, 역동성을 갖는 특징이 있으며(Park, Cheon, & Lee, 2008), 이 때 경험하는 시기적 특징은 혼란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안정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문제 상황의 해결책이 되며, 적합한 진로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에 추후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진로정체감이란 직업에 대해 갖는 자신의 흥미와 목표, 재능에 대해 정확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갖췄는가를 의미한다(Holland, 1985). 만약 명확한 진로정체감을 가질 경우 개인이 목표로 하는 직업의 수는 적어지고, 진로 결정에도 자신감을 갖게 된다(Kim, 2007). Holland와 Gottfredson과 Power(1980)에 의하면 진로정체감은 나이, 교육수준, 자아개념, 진로포부 등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정체감의 수준도 점차 상승하게 된다(Ryu, 2006 재인용). Super는 진로발달이 인생의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일부는 자신의 심리적-생리적 속성에 의해서, 또 다른 일부는 의미 있는 타자를 포함하는 환경조건에 의해서 결정된 비율에 따른 전체 발달의 한 측면으로서 진로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Cho, 2013; Wee, 2011). 그러므로, 진로정체감이 어떠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개인변인 뿐 아니라 환경변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Marcia(1966)는 자아정체감이 진로정체감의 발달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아정체감의 발달 단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의사결정수준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Kim(2014)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참고로, Erikson의 결정

기적 이론은 자아개념을 자아정체감의 발달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Yoon, 2012),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을 자아정체감과 다르지 않는 개념으로 보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진로정체감은 자아정체감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 뿐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중 많은 연구가 가족변인 중 부모와 관련된 변인들을 다루었다. 특히 Kim(2012), Park(2015)과 Yoon(2015)은 개인특성과 함께 부모관여방식을, Mok(2011)은 자기격려와 함께 부모애착을 진로정체감과의 관련변인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의 진로지지는 자녀의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는데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Kim, 2012; Park, 2015; Yoon, 2015). 반면,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가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주는 것이 아니며, 과한 개입으로 작용해 오히려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어(Chope, 2005), 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Yoon(2015)은 부모의 지지 뿐 아니라 또래지지가 기본 심리욕구를 경유하여 진로정체감에 간접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Noh(1999)는 형제와 부모, 친구뿐만 아니라 교사 역시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타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반면, Park(2016)은 진로정체감을 학습습관과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 요인, 삶의 만족 등과 함께 분석한 결과, 교사 및 교우 관계가 삶의 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만, 진로정체감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정서적, 물리적 지지가 학생의 진로인식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유의미하지 않게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어(Yoon, 2012), 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가정과교육과 진로와 관련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가정과 수업을 통한 진로성숙도의 변화(Nam, 2012; Park, 2013), 대안학교와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도 차이 분석(Kim, 2009), 가정교과서의 진로교육 내용 분석(Kang, 2011; M. Kim, 2013; Son, Park, & Chae, 2009), 진로 프로그램 개발(Lee, Kim, Yun, & Cheon, 2010), 가정교과의 진로교육과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E. Kim, 2013), 진로성숙도

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Hong & Yoo, 2008) 등이 있다. Hong과 Yoo(2008)가 진로성숙도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지만, 한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 규모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자료를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Super는 진로유형 연구에서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등 5개의 발달단계를 나누었다. 탐색기(15~24세)는 학교생활, 여가활동, 시간제 일을 통하여 자아를 검증하고 역할을 수행하며 직업탐색을 시도하는 시기로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로 구분되는데, 특히 잠정기는 중학생 시기에 해당되며 잠정적인 진로를 선택하고 그것을 환상, 토의, 일, 기타 경험을 통하여 시도해 보는 시기이다(Cho, 2013; Wee, 2011). 그러므로 중학교 시기는 진로발달과정 중 진로탐색기로 자기 탐색 및 이해에 기반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면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과업을 가지고 있어(Choi & Hong, 2013), 중학교 시기에 진로정체감과 관련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 개인발달 영역과 발달환경 영역(Kim, 2012; Mok, 2011; Park, 2015; Park, 2016; Son, Sin, & Son, 2014)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진로정체감과 관련지어 개인발달 영역과 발달환경 영역을 모두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개인 발달 영역으로는 자아정체감, 발달환경 영역으로는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를 진로정체감과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자아정체감이 부모의 방임과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Kim, 2014; Lee & Sunwoo, 2015), 부모양육방식 뿐 아니라 또래애착 또한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이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 Kim, 2018; Park & Yang, 2017). 또한 자아정체감과 교사지지가 진로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정체감과 교사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Yoon, 2012),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 등과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부터 실시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학교 1학년 패널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자아정체감,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는데 있다. 또한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와 진로정체감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

감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정체감과 연관된 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여 가정과수업을 통한 진로정체감 향상, 진로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정체감,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둘째,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와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진로정체감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로정체감의 정의 및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Son et al., 2014). Holland는 진로정체감이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안정된 상(picture)을 통해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의 확신으로 설명하였다(Kong, 2008). 나아가 개인이 지각한 자신의 목표와 흥미, 재능 등에 대해 얼마나 명확하고, 안정된 청사진을 소유하고 있는가의 의미로 보았다(Holland, 1985).

국내의 연구에서 Pi(2005)는 진로정체감을 직업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해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본인의 진로 및 적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고, 추후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 직업 세계와 연관 지을 때 영향을 주는 토대로 정의한다. Shin과 Jang(2012)은 Holland(1985)의 정의와 비슷하게 직업에 대한 목표, 흥미, 능력 등에 대해 각 개인이 얼마나 안정된 정체성을 형성하였는지를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Lee(2008)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할 때 진로에 대해 본인이 갖고 있는 신념

및 태도가 얼마나 명확성과 안정성을 구축하고 있는가의 정도로 진로정체감을 설명하였다.

Ko(2014)는 학자별로 진로정체감의 개념을 정립할 때 어떤 단어들(어휘)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 Berelson의 단어분석법을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신, 능력, 흥미, 목표, 상/그림, 직업, 명확/정확, 안정, 진로의 단어가 자주 거론됨을 확인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진로정체감이란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진로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직업에 있어서의 능력, 흥미, 목표에 대해 안정된 상을 갖춘 정도라 하였다.

Holland(1985)에 의하면 정체감은 개인적 정체감과 환경적 정체감으로 구성되는데, 진로정체감은 이 두 정체감이 일치될 때 만들어진다. 먼저 개인적 정체감이란 성격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목표나 흥미, 재능에 대해 스스로 분명하고 안정된 상을 갖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환경적 정체감은 개인이 속한 조직이나 주변 환경이 명확하고, 목표나 직무, 보상 등을 제공할 때 형성될 수 있다. 그는 행동이란 개인적인 요소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되며, 두 정체감을 바로 인식할 때 비로소 본인 스스로 진로에 대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개인적, 환경적 정체감이 동시에 형성되고, 발달할 때 안정적인 진로목표, 흥미, 능력까지 향상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이란 자신의 인생을 위해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하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 2.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

Roe(1959)에 의하면, 성인기의 직업선택은 아동기에 형성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욕구에 대한 반응으로 이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부모양육방식은 자녀의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Lee(2010)는 부모의 지지행동, 간섭행동, 관여행동을 진로관련 행동으로 보고, 부모의 신뢰성과 친밀감을 애착으로 구분하여, 진로정체감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때 부모의 간섭 및 관여 행동은 진로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진로지지 행동 및 부모의 애착은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확

인하였다. Kim(2012)은 부모가 다른 타인에 비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 상 청소년기의 부모, 자녀 관계에서 독립성보다 정서적 친밀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부모관여방식 중 부모의 지지는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안에서의 정서적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진로 역량도 개발될 수 있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2015)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데,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수준도 높아지며, 특히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언어적 격려는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 지지원은 부모 외에 친구, 교사를 들 수 있다. 청소년기의 또래애착은 진로자기결정 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 감소와 진로정체감 발달을 위한 보호요인으로 제시된다(Ahn & Lee, 2011). 학교 또한 청소년 발달의 매우 중요한 환경 변인으로 교사-학생 간 언어적 상호작용은 진로정체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Lee(2006)에 의하면 담임교사와의 대화 공감도는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인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학생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교사가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공감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이는 자기 확신과 진로에 대해 명확성을 갖게 한다. Yoon(2012)은 초등학생은 담임교사가 본인을 많이 지지해 준다고 지각할수록 진로인식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Hwang(2018)은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 그림, 열등감이 진로정체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림,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 등이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열등감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H. Kim(2018)은 고등학생을 ‘정서 불안정형’과 ‘정서 안정형’ 집단으로 분류하여 진로정체감을 분석한 결과, 부모양육 중 감독, 또래 소통, 교사애착이 두 집단 모두에서 진로정체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Noh(1999)는 부모, 직업학교 교사, 재직학교 교사, 직업학교 급우, 친구 등의 지지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직업학교 교사의 사회적 지지만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자아정체감을 들 수 있다. 자아정체감이란 개인의 다양한 충

동, 능력, 신념, 생활사 등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내적, 역동적인 체계를 뜻하는 개념으로 진로정체감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아가 자아정체감은 직업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줌으로써(Marcia, 1966), 진로결정과도 연관성을 갖는다. Lea 외(2017)는 중3, 고2, 고3 시기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변화추이를 파악한 결과, 모두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중3 시기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이 높으면 고2, 고3시기에도 높은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중3시기 자아정체감은 같은 시기 진로정체감에 있어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3시기 자아정체감은 진로정체감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자아정체감만으로는 진로정체감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Lea et al, 2017). Kim 외(2014)는 중학생의 기본심리욕구,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간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인 중학생들의 특성상,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어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on 외(2014)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개인 및 발달환경영역의 변인을 알아본 결과, 삶의 목표>삶의만족도>자아정체감>학습습관>정서>자존감>또래애착>방임 순으로 또래애착, 방임보다 자아정체감과 같은 개인변인이 진로정체감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자아정체감에 따라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한편, Lee(2001)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Kim, 2011; Kim, 2014; Ryu, 2015; Shin, 2014)에서도 자아정체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정체감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 자아정체감 등은 청소년기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 3.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역할을 살펴본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양육방식이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Kim, 2014; Lee & Sunwoo, 2015). Kim(2014)은 대학생의 긍정적 자아개념, 부모와의 연결, 부모와의 분리 등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부모와의 분리정도가 클수록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긍정적 자아개념을 매개로 하여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긍정적 자아개념이 부모와의 분리보다 진로정체감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연결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Lee와 Sunwoo(2015)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부모의 방임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방임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다시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부모의 방임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아정체감이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부모양육방식 뿐 아니라 또래애착 또한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이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 Kim, 2018; Park & Yang, 2017). Park과 Yang(2017)은 부모방임, 또래애착은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하여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방임을 덜 할수록,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를 부모방임, 또래애착으로, 매개변수를 자아정체감으로, 종속변수를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감으로 설정한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살펴본 결과, 부모방임, 또래애착과 삶의 만족감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방임, 또래애착과 삶의 만족감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은 부분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 Kim(2018)은 직업체험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개인 및 환경 변인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자아정체감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일 컸으며, 교우관계, 합리적 설명(부모양육방식) 순으로 진로정체감에 대한 영향력이 있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지지와 진로인식도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Yoon, 2012), 자아개념이 진로인식도에 영향을 미쳤

고 교사지지 또한 진로인식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개념과 교사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모양육방식, 포래에착, 교사지지 등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가 자아정체감의 수준에 따라서 그 영향력의 크기나 방향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 III. 연구방법

#### 1. 분석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을 확인하고,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실시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중1 패널 3차년도 자료를 분석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무 응답자 92명을 제외한 2,080명이며, 이 때 부의학력, 모의학력, 부의 근로여부, 모의 근로여부, 가구 연간소득(단위: 만원)은 부모가, 성별은 학생이 응답하였다. <Table 1>과 같이 연구대상자의 성별의 경우 남학생 51%(1,061명), 여학생 48.0%(1,019명), 연령의 경우 15세가

87.7%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14세 11.6%(261명), 16세 0.6%(14명), 17세 0.1%(3명) 순이다. 부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 45.5%(855명), 전문대졸 이상 54.5%(1,025명), 모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 58.1%(1,107명), 전문대졸 이상 41.9%(799명)로 나타났다. 부 직업유무의 경우 직업있음 97.3%(1,830명), 무직 2.7%(50명)이며, 모 직업유무의 경우 직업있음 68.9%(1,311명), 무직 31.1%(591명)로 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의 구성은 KCYPs에서 정의한 요인과 문항내용으로 모두 4점 척도이다. ‘1=매우 그렇다,’ ‘2=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역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역산 처리하여 모든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정도를 의미한다.

##### 1) 진로정체감

KCYPs의 중1 패널에 제시된 진로정체감 척도는 Kong(2008)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 Variables                                  |        |                         | Frequency (%)     |
|--|--------|-------------------------|-------------------|
| Gender                                     |        | Boy                     | 1,061(51.0)       |
|  |        | Girl                    | 1,019(49.0)       |
| Age  |        | 17                      | 3(0.1)            |
|  |        | 16                      | 14(0.6)           |
|  |        | 15                      | 1,981(87.7)       |
|  |        | 14                      | 261(11.6)         |
| Academic attainment                        | Father | High school and under   | 855(45.5)         |
|  |        | College and over        | 1,025(54.5)       |
|  | Mother | High school and under   | 1,107(58.1)       |
|  |        | College and over        | 799(41.9)         |
| Working situation                          | Father | Working                 | 1,830(97.3)       |
|  |        | No working              | 50(2.7)           |
|  | Mother | Working                 | 1,311(68.9)       |
|  |        | No working              | 591(31.1)         |
| Household yearly income (unit: 10,000 won) |        | Mean±Standard deviation | 4,670.79±2,726.03 |

(N=2,080)

의 척도를 8개 문항으로 수정, 보완해 사용한 것으로 모두 긍정적인 문항이기 때문에 역산 처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8개 문항의 Cronbach  $\alpha$  값은 .890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다.

2) 자아정체감

KCYPS의 중1 패널에 제시된 자아정체감 척도는 Song(2008)의 척도를 8개 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것으로 개인발달영역의 사회·정서발달 부분에 해당한다. 자아정체감 척도의 전체 8개 문항 중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 놓고 있다’,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 한다’,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 한다’의 1, 3, 5번 문항은 긍정적인 문항이기 때문에 역산 처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8개 문항의 Cronbach  $\alpha$  값은 .622로 나타났다.

3) 부모양육방식

부모양육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KCYPS의 중1 패널에 제시된 양육방식의 항목 중 방임, 학대에 부모-친구관계를 추가적으로 선택해 활용하였다. 방임과 학대는 Huh(1999), Kim(2003)의 아동학대 문항을 참고하여 사용한 것으로, 각각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방임 문항은 모두 긍정적인 문항이므로 역산 처리하였고, 반면 학대 문항은 모두 부정적인 문항이므로 그대로 사용하였다. 부모-친구관계는 Huh(1999, 2004)의 부모양육방식의 8개 하위 요인 중 감독(자녀의 학교 내외의 생활과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에 근거하여 작성되어 본 연구의 부모양육방식 변수를 위해 추가하였으며, 총 3개의 긍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역산 처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양육방식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며,

11개 문항의 Cronbach  $\alpha$  값은 .743이다.

4) 또래애착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또래애착의 경우 KCYPS 중1 패널의 친구환경 영역에 해당하는 또래애착 척도 중 소외를 제외한 의사소통과 신뢰 척도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Armsden & Greenberg(1987)의 애착척도(IPPA)를 변안·수정하여 사용했던 Hwang(2010), Kim(1995)의 문항을 활용한 것으로, 전체 25개의 문항 가운데 중복 문항을 제외한 후 각 하위 영역 당 총 3개의 문항씩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의사소통과 신뢰 척도 문항은 모두 긍정적인 문항이었기 때문에 역산 처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값은 .883이다.

5) 교사관계

교사관계 측정도구는 KCYPS 중1 패널의 교육환경 중 학교 생활영역에 해당하는 학교적응 중에서 교사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사관계 척도는 Jeong(2009)이 사용한 학교생활적응 척도 중에서 교사관계 문항만을 사용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교사관계 척도의 문항은 모두 5개로 긍정적인 문항이기 때문에 역산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값은 .83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진로정체감은 평균값이 2.96(SD=.61)이었으며, 자아정체감은 평균값이 2.63(SD=.40), 부모양육방식은 평균값이 3.13(SD=.39), 또래애착은 3.10(SD=.51), 교사관계는 2.88(SD=.63) 등으로 부모양육방식과 또래애착은 상당히 높았으며, 교사관계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은 5개의 변인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ons of variables

| Variables                 | N     | M    | SD  | Min. | Max  |
|---------------------------|-------|------|-----|------|------|
| Career identity           | 2,074 | 2.96 | .61 | 1.13 | 4.00 |
| Self-identity             | 2,071 | 2.63 | .40 | 1.00 | 4.00 |
| Parenting style           | 1,982 | 3.13 | .39 | 1.36 | 4.00 |
| Peer attachment           | 2,078 | 3.10 | .51 | 1.00 | 4.00 |
| Relationship with teacher | 2,079 | 2.88 | .63 | 1.00 | 4.00 |

###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ver 22.0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변수들의 평균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분석하였다. 진로정체감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성별, 학년, 모의 학력, 가구연간소득, 부모의 직업 유무 등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로 사용되어(Ka, 2015; Kim, 2008; Kim, 2009; Kim, 2012; Lee, 2010; Yang, 2004; Yoon, 2004),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성별, 부모의 최종학력, 부모의 근로여부, 가구연간소득을 선택하였다. 연구문제별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정체감,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둘째,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조절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그래프를 작성하고,

조절변수인 자아정체감의 ‘상’, ‘하’ 집단별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로,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은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의 크기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절효과 분석은 주 효과 분석에 상호작용항(독립변수\*조절변수)을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F값 변화량과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을 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관련 변인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Influence of variables on career identity

| Variables             | Model 1                       |          | Model 2 |          | Model 3 |          |        |
|-----------------------|-------------------------------|----------|---------|----------|---------|----------|--------|
|                       | B                             | $\beta$  | B       | $\beta$  | B       | $\beta$  |        |
| Gender                | .044                          | .035     | .083    | .067     | .038    | .031     |        |
| Control variables     | Academic attainment of father | -.008    | -.007   | -.007    | -.006   | .012     | .009   |
|                       | Academic attainment of mother | .047     | .038    | .026     | .021    | -.004    | -.003  |
|                       | Working situation of father   | .031     | .008    | .049     | .012    | .077     | .019   |
|                       | Working situation of mother   | -.012    | -.009   | -.001    | -.001   | -.012    | -.009  |
|                       | Household income              | 0.000021 | .093*** | 0.000016 | .068**  | 0.000015 | .065** |
| Independent variables | Parenting style               |          | .113    | .071**   | .004    | .003     |        |
|                       | Peer attachment               |          | .255    | .205***  | .165    | .132***  |        |
|                       | Relationship with teacher     |          | .122    | .124***  | .061    | .062**   |        |
|                       | Self-identity                 |          |         |          | .578    | .377***  |        |
| Constant              |                               | 2.773*** |         | 1.266*** |         | .548***  |        |
| R <sup>2</sup>        |                               | .017     |         | .104     |         | .223     |        |
| F                     |                               | 3.66***  |         | 17.40*** |         | 39.53*** |        |

\*  $p < .05$ , \*\*  $p < .01$ , \*\*\*  $p < .001$

Dummy variables; Gender, Female=0, Male=1; Academic attainment, High school and under=0, College and over=1; Working situation, No working=0, Working=1.

첫째, 모형 1은 통제변수만 투입한 것으로 성별, 부모의 학력, 부모의 근로여부, 가구연간소득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구연간소득( $\beta=.093, p<.001$ )이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설명력은 1.7%였으며,  $F_{값}(3.66)$ 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둘째,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 독립변수인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를 추가로 투입하여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모형 1과 마찬가지로 통제변수 중에는 가구연간소득( $\beta=.068, p<.01$ )이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는 또래애착( $\beta=.205, p<.001$ ), 교사관계( $\beta=.124, p<.001$ ), 부모양육방식( $\beta=.071, p<.01$ )의 순서로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설명력은 10.4%로 모형 1에 비해 설명력이 8.7% 증가하였으며,  $F_{값}(17.40)$ 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셋째, 모형 3에서는 모형 2에 자아정체감을 추가로 투입하여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구연간소득( $\beta=.065, p<.01$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연간소득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수준도 높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독립변수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아정체감( $\beta=.377, p<.001$ ), 또래애착( $\beta=.132, p<.001$ ), 교사관계( $\beta=.062, p<.01$ ) 순으로 나타나 세 변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도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부모양육방식은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F_{값}(39.53)$ 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고, 설명력은 22.3%로 모형 2에 비해 설명력이 11.9% 증가하였다.

2. 진로정체감에 대한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

자아정체감에 따라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조절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부모의 최종학력, 부모의 근로여부, 연간소득을 통제변수로 설정한 후 진로정체감에 대한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identity

| Components   | Main effect                             |           | Moderating effect |           |         |
|--|---|-----------|-------------------|-----------|---------|
|  | B                                       | $\beta$   | B                 | $\beta$   |         |
| Moderating effect of self-identity for parenting style           | Parenting style                         | .073      | .046*             | .063      | .040    |
|  | Self-identity                           | .642      | .419***           | .603      | .393*** |
|  | Parenting style*Self-identity           |           |                   | .338      | .095*** |
|  | Constant                                | 2.756***  |                   | 2.744***  |         |
|  | R <sup>2</sup>                          | .202      |                   | .211      |         |
|  | F                                       | 42.091*** |                   | 40.201*** |         |
|  | F change                                |           |                   | 17.191*** |         |
| Moderating effect of self-identity for peer attachment           | Peer attachment                         | .176      | .144***           | .174      | .142*** |
|  | Self-identity                           | .593      | .386***           | .582      | .379*** |
|  | Peer attachment*Self-identity           |           |                   | .071      | .027    |
|  | Constant                                | 2.751***  |                   | 2.749***  |         |
|  | R <sup>2</sup>                          | .216      |                   | .217      |         |
|  | F                                       | 47.582*** |                   | 43.401*** |         |
|  | F change                                |           |                   | 1.466     |         |
| Moderating effect of self-identity for relationship with teacher | Relationship with teacher               | .090      | .092***           | .092      | .095*** |
|  | Self-identity                           | .624      | .407***           | .638      | .415*** |
|  | Relationship with teacher*Self-identity |           |                   | -.093     | -.046*  |
|  | Constant                                | 2.777***  |                   | 2.777***  |         |
|  | R <sup>2</sup>                          | .207      |                   | .209      |         |
|  | F                                       | 44.964*** |                   | 41.342*** |         |
|  | F change                                |           |                   | 4.273*    |         |

\*  $p<.05$ , \*\*  $p<.01$ , \*\*\*  $p<.001$

첫째, 부모양육방식과 자아정체감이 미치는 영향의 주 효과 β값은 각각 .046( $p<.05$ )과 .419( $p<.001$ )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부모양육방식과 자아정체감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되자 설명력은 20.2%에서 21.1%로 증가하였으며, 상호작용효과( $\beta=.095$ )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양육방식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래프와 회귀계수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양육방식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부모양육방식과 자아정체감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하 두 집단으로 나눈 후, 진로정체감 평균값을 산출하여 작성한 그래프는 <Figure 1>과 같다. <Figure 1>에 의하면,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라 부모양육방식과 진로정체감 간의 기울기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아정체감 상·하 두 집단별로 부모양육방식과 진로정체감 간의 회귀계수를 산출한 결과, 부모양육방식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자아정체감이 ‘상’인 집단( $\beta=.215,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났지만, 자아정체감이 ‘하’인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자아정체감이 ‘상’인 집단에서 부모양육방식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또래애착과 자아정체감이 미치는 영향의 주 효과 β값은 각각 .144( $p<.001$ )와 .386( $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기에 또래애착과 자아정체감의 상호작용항이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관계와 자아정체감이 미치는 영향의 주 효과 β값은 각각 .092( $p<.001$ )와 .407( $p<.001$ )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교사관계와 자아정체감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었을 때의 설명력은 20.7%에서 20.9%로 증가하였으며, 부(-)적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므로( $\beta=-.046, p<.05$ )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교사관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 경우 의사결정력도 높아져 교사로부터의 영향력을 덜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그래프와 회귀계수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관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교사관계와 자아정체감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하 두 집단으로 나눈 후, 진로정체감 평균값을 산출하여 작성한 그래프는 <Figure 2>와 같다. <Figure 2>에 의하면,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라 교사관계와 진로정체감 간의 기울기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자아정체감 상·하 두 집단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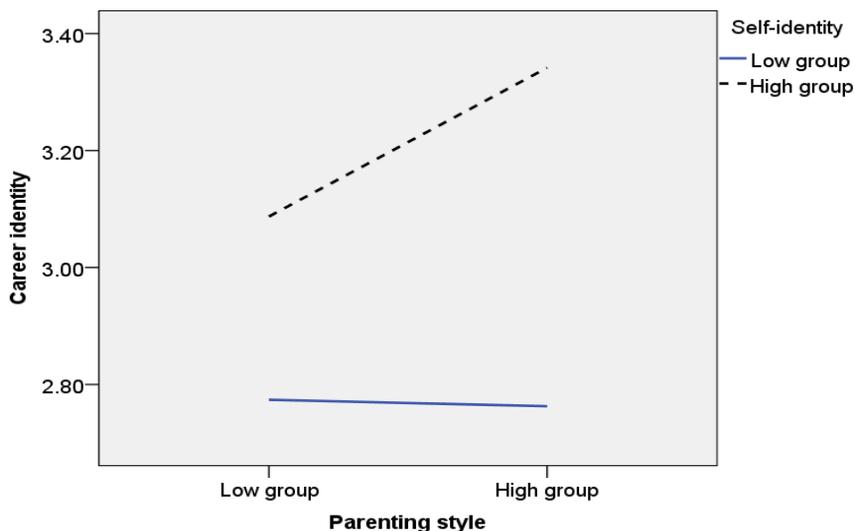


Figure 1. Moderating effect of self-identity on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career ident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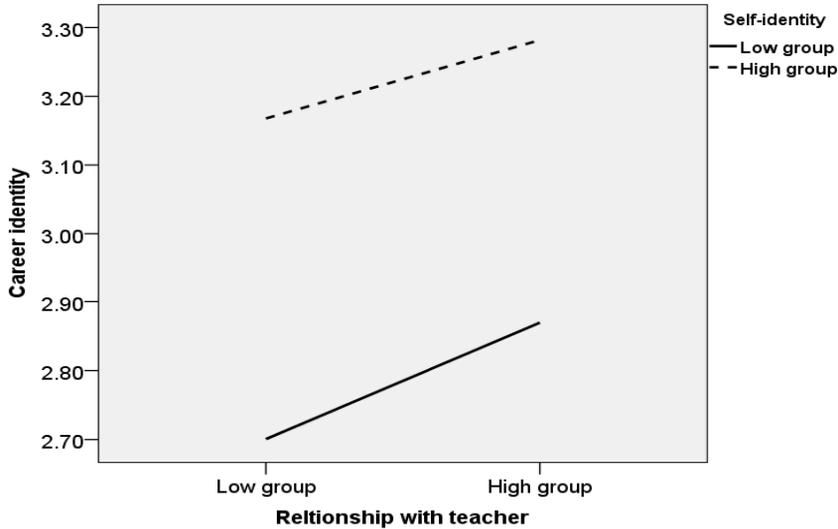


Figure 2. Moderating effect of self-identity on the influence of relationship with teacher on career identity

교사관계와 진로정체감 간의 회귀계수를 산출한 결과, 교사관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자아정체감이 ‘하’인 집단( $\beta=.176, p<.001$ ), 자아정체감이 ‘상’인 집단( $\beta=.137, p<.001$ )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정체감이 ‘하’인 집단보다 ‘상’인 집단에서 교사관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변인들과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는 데 있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에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IBM SPSS 22.0이었으며,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중1 패널 3차년도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 Cronbach’  $\alpha$ ,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정체감, 또래애착, 교사관계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부모양육방식은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분석 결과 가구연간소득만이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부모양육방식과 자아정체감의 상호작용항에 정(+)적으로, 교사관계와 자아정체감의 상호작용항에 부(-)적으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기반한 시사점 및 제한점, 이에 따른 후속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변인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아정체감, 또래애착, 교사관계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진로정체감의 형성은 대인관계를 통한 긍정적인 상호작용보다 자아정체감과 같은 개인변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청소년기의 진로발달과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이는 자아개념과 같은 개인변인이 교사지지나 부모양육태도보다 진로발달과의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난 연구(Go, 2017; Yoon, 2012) 결과와 관련된다. 또래애착, 교사관계, 자아정체감이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으며 부모양육방식은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다는 본 연구 결과는 또래와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은 많은 시간을 부모보다는 또래와 함께 보내기 때문에 이들의 교류를 통해 진로와 관련된 정보와 정서적 지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Flaxman, Guerrero, &

Gretchen, 1999, Yoon, 2015 재인용).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중에서 또래애착이 진로정체감 발달을 위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연구(Ahn & Lee, 2011), 교사와의 관계가 진로정체감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Lee, 2006; Noh, 1999; Yoon, 2012), 또래 및 교사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Hwang, 2018; H. Kim, 2018), 자아정체감이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한 연구(Kim et al, 2014; Lea et al, 2017; Lee, 2001) 결과와 관련이 있다. 반면,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Kim, 2012; Lee, 2010; Park, 2015)와는 일치하지 않지만, 부모의 방임이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아정체감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Lee & Sunwoo, 2015)결과를 일부 지지한다. 이에 후속연구로 부모양육방식을 좀더 세분화거나 진로와 관련된 부모 지지로 심화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부모, 또래, 교사와 같은 의미있는 타자로부터의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원별로 탐색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여러 형태로 분류하여 그 분류별로 진로정체감과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 자존감지지 등 4가지 형태로 분류하여(Noh, 1999) 각 지지 형태별로 진로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진로지지 통제변수 분석 결과 가구연간소득만이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a(2015)와 Song(2006)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하지만, 진로정체감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Kim(2012), Hong과 Yoo(2008) 연구와 부모의 학력이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쳤던 Jin(2011), Kim(2012)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둘째,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부모양육방식 및 교사관계가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로 정적 및 부적 효과가 각각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의 수준이 높은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격려, 존중과 같은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중학생 자녀의 진로정체감이 더욱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아정체감이 높은 경우 부모양육방식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이 증가하는 반면, 자아정체감이 낮은 경우에는 부모양육방식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

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를 첫 번째 연구문제 모형 3의 결과 중 부모양육방식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자아정체감이 높은 중학생은 자아정체감이 낮은 중학생과 비교하여 어떤 다른 점이 있는 지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이 높은 경우 교사관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이 자아정체감이 낮은 경우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경우 의사결정력도 높아져 자아정체감 수준이 낮은 경우보다 교사와의 관계로 인한 정적인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지지의 하위 영역별로 자아개념과 진로인식도의 관계를 알아본 Yoon(2012)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한다. 즉, 교사지지 하위 영역 중에서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의 경우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진로인식도가 보다 유의미하게 높지만 물질적 지지의 경우 진로인식도에 대해 주효과만 보일 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Yoon, 2012). 그러므로 교사관계에 대해서 일반적인 의미 뿐 아니라 좀더 세분화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중학생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정체감과 또래애착과 관련된 학교교육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과수업에서 다양한 형식의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자아정체감과 또래애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5개정 기술·가정 중학교 교육과정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 단원에서 자아정체감을 학습요소로 다루고 있으며, 성취기준이 “[9기가01-01]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과 자신의 발달 특징을 연결지어 이해한다.”로 자아정체감은 중학생을 위한 가정과수업에서 주요하게 다루지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또한 핵심개념 중 하나인 ‘발달’의 일반화된 지식은 “자신의 발달 특징에 대한 이해와 자아정체감 형성은 건강하고 자주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라고 할 때, 자아정체감은 본인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정체감을 향상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또한 또래애착과 관련지어, 2015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교과역량 중 하나인 관계형성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기술·가정 수업에

서는 관련 성취기준 ‘[9기가01-02] 청소년기 또래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건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를 다룰 때 다양한 매체 활용과 토의, 토론, 역할놀이 등과 연계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실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이 잘 형성되는지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 부모의 최종학력, 부모의 근로여부, 연간소득을 통제한 결과 성별에 따른 진로정체감에 대한 차이는 없었지만 가구연간소득이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진로 발달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듯 진로정체감은 한 가지 배경 변인에만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 계열, 가족 구성 등 개인특성 변인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된다면 학교 현장에서 진로 상담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들자면, ‘한국 청소년·아동 패널(KCYPS)’ 중1 패널의 3차년도 자료에서 필요한 연구 변인을 제한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모양육방식과 관련해 의사소통, 애정과 같은 항목들은 3차년도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아 함께 살펴볼 수 없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 변인의 범위가 가정, 학교 환경에만 해당되므로 지역사회 관련 변인들의 상관관계까지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교육 현장에서 진로와 관련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Ahn, H. J., & Lee, C. H. (2011). The effects of attachment on career maturity throug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Educational Research for Tomorrow*, 24(1), 1-21.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Cho, B. H. (2013).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program on the career consciousness of the adolescents with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Korea.
- Choi, S. Y., & Hong, J. Y. (20). Development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on career through reading activity and its effect of career identity and career preparation activity of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청소년문화포럼*, 33, 61-82.
- Chope, R. C. (2005). Qualitatively assessing family influence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4), 395-414.
- Go, M-S. (2017). *The effects of parental 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in Jeonju Area on self-identity and career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osuk University, Jeonbuk, Korea.
- Holland, J. L. (1985). *Making Vocational choice: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ong, H. Y., & Yoo, T. M. (2008). Analysis of influential variables on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Focusing on self-identit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3), 49-64.
- Huh, M. Y. (1999).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Huh, M. Y. (2004).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ventory for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2(2), 170-189.
- Hwang, M. K.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peer attachment of multi-culture children and social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 Hwang, S. Y. (2018). *The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teacher attachment on adolescents' vocational identity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grit and inferiority feel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 Jeong, H. S. (2009). *The influence of attachment to mother and school life adjustments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optim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 Jin, S. M. (2011). Group comparison study by individual student variables and family background on career maturity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of Seoul. *Korean Education Inquiry*, 29(2), 133-156.
- Ka, Y. S. (2015). *An effect of middle school student' individual and creative field study variables on career ident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K. S. (2011).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career education unit in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extbook.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8), 113-124.
- Kim, C. (2018). *A Study on person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affecting career ident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Kim, E. J. (2013). Career education in technology · home economics education and application plan in free learning semester: Focus on home economics education uni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5(3), 105-121.
- Kim, E-S (2011).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identity and attitudes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in the relation between ego-identity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femal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J. (2018). Career identity of high school students: Exploring differences by negative emotions of consumer typolog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2), 476-489.
- Kim, H. S. (2014). The influence of separation-individuation and positive self-concept on career identity of college students - focus on a university in seoul.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5(4), 105-124.
- Kim, J. Y.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 H. (2013). *Analysis on course education contents of home economics textbook for middle school graders-based on textbook revised according to academic curriculum in 2007*.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Kim, M. J. (2012). *The influence of parents' involvement types on adolescents' career ident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H. (2007). *The study on the impact of social work practicum on career development: Laying stress on vocational identity,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K. (2008). Factors Affecting Career Maturity and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On the basis of the comparisons by students' sex and school-typ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6), 145-170.
- Kim, S. W. (2003).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bused children's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Y. (2009). *A comparative study on student career identity and career maturity in alternative and academic high schoo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Jeonnam, Korea.
- Kim, W., Park, Y-. H., & Kim, J. (2014). A structural model of the relationships among basic psychological needs, ego identity, and career ident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8(2), 333-352.
- Ko, M. S. (2014). *Mediating effects of career ident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support and career*

-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Kong, I. K. (2008). Effects of holland's career exploration program on career maturity, career efficacy, career identity and career barriers of underachiev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 Lee, H. J. (2008). Differences in career openness, career exploration, and career identity by sex and level of social anxiet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6(1), 79-99.
- Lea, E., Shin, A., Kim, S., & Lee, E. (2017).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of ego-identity and career-identity in adolescents using latent class growth modeling analysis. *청소년문화포럼*, 50, 91-112.
- Lee, H. J. (2010). The relationship of parent career-related behavior, parental attachment, and undergraduates' career identi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3(1), 41-59.
- Lee, H. S., & Sunwoo, H. J. (2015). The factors affecting the adolescent's career identity: Neglect and ego-ident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6), 57-73.
- Lee, H. S., Kim, H. J., Yun, S. H., & Cheon, S. M. (2010). Design and application of career education program related to subject manual training and home economics of middle school.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9(3), 247-263.
- Lee, S. I. (2001). The relationship among ego identity,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 Lee, S. K. (2006). Korean high school students' vocational identity and school related variable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8(3), 613-627.
-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551-558.
- Ministry of Education (2015). *Practical Arts(Technology · Home Economics) Curriculum*, No. 2015-74.
- Mok, K. S. (2011). *The mediated effects of self-encouragement in the relationship of high school students' paternal and maternal attachment and career ident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Pyeongtaek University, Gyeonggi, Korea.
- Nam, S. H. (2012). *Effect of integrated career education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subject using broadcast program on career maturity and job value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Korea: Focused on Ilsan, Gyeonggi-do*.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Korea.
- Noh, M. S. (1999). *A study on career maturity and social support of the general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for their vocational co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C. S. (2013). *The affects of career education in home economics on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in rural a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buk, Korea.
- Park, G. H., Cheon, M. S., & Lee, H. R. (2008). The effects of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ing on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the career indecision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1(3), 193-216.
- Park, J. S. (2016).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f the career identity and life satisfaction for adolescent,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5(2), 49-64.
- Park, M. R. & Yang, E. J. (2017). The effects of parental neglect and peer attachmen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high school students through the medium of self-identity and career ident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1), 263-284.
- Park, Y. J. (2015). *The influence of middle schooler's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vocational interest 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 The moderating roles of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Baekseok University, Chungnam, Korea.
- Pi, G. Y.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 of high school students'*

-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Chungnam, Korea.
- Roe, A. (1959). Early determinants of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 212-217.
- Ryu, H. L. (2015). *Relationships among self-identity, career identity, and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Gyeonggi, Korea.
- Ryu, J. Y. (2006). A study of the norm of vocational identity inventory in Korea middle,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2(1), 85-98.
- Shin, I. S., & Jang, Y. O. (2012). The effects of career exploration programs using career portfolio and teacher-directed on the career maturity and career identity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4(1), 85-104.
- Shin, S-W (2014).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college students' self-leadership, self-concept, career identity, and career maturit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7(1), 23-46.
- Son, H. H., Park, M. J., & Chae, J. H. (2009). A content analysis on career education in home economics textbook of the secondary school developed by the 7th educational proces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4), 145-158.
- Son, Y. A., Sin, S. J., & Son, E. Y. (2014). Valuables affecting to career identity of middle school studen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7(1), 109-125.
- Song, H. O. (2008).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s ego-ident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Song, Y. J. (2006). *Effect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ego-identity on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 Wee, S. A. (2011). *A study on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conscious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Seoul, Korea.
- Yang, S. K. (2004).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of the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Chungnam, Korea.
- Yoon, C. H. (2015). The mediating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the relation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high school students' career identity: A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Asian Journal of Education*, 16(4), 129-154.
- Yoon, S. H. (2004).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on the scholastic achievement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Korea.
- Yoon, Y. J. (2012). *Effect of the student's self-concept on element'ary school and analysis of the moderation effect of teacher's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변인과 진로정체감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에 사용한 통계 프로그램은 IBM SPSS 22.0이었으며,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중1 패널 3차년도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빈도분석, 기술 통계, Cronbach’s  $\alpha$ ,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정체감, 또래애착, 교사관계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부모양육방식은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부모양육방식과 자아정체감의 상호작용항은 정적 효과가, 교사관계와 자아정체감의 상호작용항은 부적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진로 관련 프로그램 개발, 학교 현장에서의 진로상담, 가정교과에서 진로 교육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면 진로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논문접수일자: 2017년 11월 8일, 논문심사일자: 2017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18년 6월 30일